



제 396 호 2015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다문화도시, 안산	04면	생태·관광	06면	문화·예술	08면	숲의 도시, 안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흥 마당 안산시, '제8회 세계인의 날' 열어		2015 경기안산과학축전 성료 '상상 그 이상의 미래' 보여줘		'신성희 고향에 오다'展 5월 30일까지, 단원미술관		안산이 숨겨놓은 보물 같은 산 '광덕산' 이야기	



지난 17일,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흥 마당... 안산시, '제8회 세계인의 날' 열어



코트디부아르의 민속춤



미얀마의 전통춤(위), 태국의 무에타이(아래)

지난 5월 17일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야외 공연장에는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즐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모여 있었다.

식전 행사로 다문화 가정 자녀와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지구촌합창단의 합창과 경기도립 국악단의 공연이 세계인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많은 내외빈의 축하와 축사가 이어진 후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다문화외국인시민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다문화시민 외국인근로자 부문에는 펠빈(필리핀), 결혼 이민자 부문에는 윈터뚜엣란(베트남)이, 외국인주민 문화지원 부문에는 백승희 문화세상고리 대표가, 체육지원 부문에는 유성은 태권도 사범이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세계 무형문화축제 공연팀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다. 첫 무대를 장식한 코트디부아르의 민속춤은 원시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 퍼포먼스로 관객을 압도했다. 이어 태국의 무에타이춤, 한국의 화관무, 베트남의 전

통춤, 몽골의 호치르 연주 등 총 12개국의 공연팀이 출연해 각국의 내로라하는 전통 공연을 선보여 관객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통 공연에 이어 거주 외국인들의 노래 솜씨를 뽐내는 외국인 노래자랑 순서가 이어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풍경風聲 (절이나 누각 등의 처마 끝에 나는 경쇠)'을 만들고 있던 뉴이탄투이 씨(36세, 베트남)는 "평소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쉬는 날 원곡동에서 친구들을 만난다. 베트남은 사계절 여름만 있는데 한국은 봄과 가을이 있어 좋다."며 "처음 눈을 봤을 때 조금 같았다. 한국의 모든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족 팔찌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다식 만들기 등의 부스에는 내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과테말라의 걱정인형을 만들던 최수정(12세, 서울), 최윤정(10세) 자매는 "할머니 맥이 안산이라 놀러왔는데 행사

가 있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왔다. 평소에 보기 힘든 세계 여러 나라의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중부일보가 주최하고 안산시, 안산문화원,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주관하였으며 농협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제8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틀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주관으로 '다문화도시 <안산>의 위치를 묻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렸다. 명실상부 다문화도시 안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에는 현재 80여 개국에서 온 7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희망이웃'운영해

결혼 후 타지에서 정착해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양육을 한다면 그 어려움을 배가 된다.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여성과 한국인 주민여성이 서로 친구가 되는 '희망이웃'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 여성과 다문화 여성이 1대 1로 결연이 되면 월 2회 자유롭게 만나면서 다문화 여성의 한국문화적응을 돕는다.

2012년부터 멘토와 멘티로 만나 우정을 쌓고 있는 김인영 씨(49세, 와동)와 류리지앤 씨(39세, 중국)는 서로를 친자매 이상이라 부른다. 김인영 씨는 "올케가 필리핀 여성이라 자연스럽게 다문화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멘토로 나서게 되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조언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류리지앤 씨는 "만나면 둘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

학습에 관해서도 물어본다. 다른 곳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만 둘이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정이 많이 들어서 친언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만두를 대접한다는 전통에 따라 직접 장을 본 후 만두를 빚어 멘토에게 대접한 류리지앤 씨와 류리지앤 씨에게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살뜰히 챙겨주는 김인영 씨의 모습은 여느 자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부터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류리지앤 씨는 "한국에 와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중국 전통춤 배워 봉사활동도 하고, 시립국악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금'을 배우고 있는 류리지앤 씨는 앞으로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희망이웃'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멘토와 멘티는 서로

다른 생김새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지만 서로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육아 및 살림방법, 자기 나라 음식 만들기, 한글 공부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한다. 복지관에서는 '희망이웃'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멘토링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자 교육과 중간 점검을 위한 간담회, 활동 장려를 위한 연합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한 연합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9팀이 '희망이웃'으로 결연이 되어 모임을 갖고 있으며 멘토를 희망하는 한국인 이웃 6명과 멘티를 희망하는 다문화 이웃 4명이 대기 중이다. 대기 중인 이웃들은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연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예정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은 국경을 넘어 서로가 이웃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다.

• 문의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031-363-0412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외국인주민센터 정명현 소장에게 듣는 ‘다문화’ 이야기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자 각국의 특색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다.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의료·법률서비스·생활정보 제공,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정명현 소장을 만나 외국인 주민 현황과 교육, 종교생활 등에 대해 들었다.

Q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다문화도시입니다.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안산시에 정착하게 되었나요?

A 1990년 중반부터 3D업종의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 연수생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2004년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결혼이민자가 생겼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중국동포들이 가족 초청 형식으로 입국하기 시작해 2007년에는 동포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고려인을 포함한 많은 동포들이 입국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 되나요?

A 2015년 2월 통계를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0,294명입니다.

국적 취득자와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약 8만5천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산시 인구(약 77만 명) 대비 외국인은 1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중국 동포) 44,903명을 포함한 중국(52,427명, 74.56%), 우즈베키스탄(4,813명, 6.85%), 베트남(2,496명, 3.55%), 러시아(1,430명, 2.03%), 인도네시아(1,400명, 1.99%), 필리핀(1,299명, 1.85%), 네팔(764명, 0.89%), 캄보디아(628명, 0.89%), 스리랑카(617명, 0.88%), 타이(574명, 0.82%), 기타(3,845명, 5.47%) 순으로 80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다문화거리

Q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 언어, 교육, 경제가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들 대다수가 단순기능인력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정은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다문화 가족은 보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와 닿을 겁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로 행정기구를 편성해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1년 365일 한국어교육 등 생활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도시라는 특성상 국가별공동체 형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덕분이랄까요.

Q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국적이 다양한 만큼 종교도 다양할텐데요, 이들의 종교생활이 궁금합니다.

A 원곡공원 앞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파키스탄인들은 일요일마다 사원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불교국가 타이·스리랑카인들은 외국인주민센터 강당에서 설법 모임을 갖기도 하고, 주차장 한쪽에 불단을 차려놓고 예불을 드리기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이들의 다양한 종교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기숙사에서만 생활하며 정서적으로 황폐화되어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외국인 주민들은 안산에 거주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존재로 생산과 소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이들은 안산시의 시세를 구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감당할 중요한 존재이며 자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을 3D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로만 여기며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다정한 이웃 ‘알리샤’를 만나다

다른 나라를 경험하면 넓게 생각할 수 있어

호감 가는 사람은 어디서나 눈에 띄게 마련이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알리샤 씨(36세)가 초등학교 운동회날 반짝 반짝 빛나는 눈으로 인사할 때, 한눈에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 후에, 마을축제 먹거리 부스에서 부침개를 만들고 있는 그녀와 마주쳤다. 종일 서서 봉사하면서 힘든 기색 없이 웃던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Q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나?

A 2007년에 결혼해서 한국에 산지 8년째다.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선교여행 중에 남편을 처음 만났다. 신랑이 나를 많이 좋아했다.

Q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든 점이 있었다면?

A 처음에 문화차이 때문에 서운한 것들이 있었는데, 대전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언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러시아랑 한국이랑 비교하지 마라.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 둘은 아예 다른 나라다.”는 말이 많이 도움이 됐다.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만 평생 살면 진짜 모른다. 다른 나라에 가서 나와 다른 것들을 직접 경험해야 틀을 깨고 조금 더 넓은 사고를 하게 되는 거 같다.

Q 한국말이 수준급이다

A 서울대에서 한국어 두 학기 정도 배웠고, 처음에 신

랑이랑 영어로 대화하다가 한국말이 잘 들리지 않아 집에서 한국말만 쓰자고 정했다. 물론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한국 드라마다.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다.

사실 시댁관계라는 걸 잘 몰랐는데, 한국 드라마를 통해 시댁관계를 배웠다. 러시아에서는 자식들이 대학가면 아예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알아서 사는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족, 우리남편’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문화를 말해주는 것 같다.

Q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러시아와 한국, 차이가 있다면?

A 러시아에서는 아이들 어렸을 때 공부 잘 안 시킨다. 우리 애들도 러시아 갔을 때는 매일매일 밖에서 놀기만 한다. 한국에서는 놀 시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 같다. 놀이터만 나와도 엄마들이 어떤 책이 좋고, 뭘 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나도 조금씩 애들을 공부하라고 하게 된다. 고학년이 되면 어느 순간 학교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또 걱정이 되기도 한다.

Q 놀이터축제 때 봤는데, 부침개도 잘 만들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데...

A 한국에 와서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한국요리를 더 잘한다. 웬만한 요리도 다 하고, 김치도 직접 담가 먹는다. 원래 안양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 온



지는 1년 반 됐다. 처음 안산으로 이사 올 때 망설였는데, 살다보니 이곳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

교회 가족들하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큰애가 올해 학교에 들어가서 학부모들과도 자연스럽게 알게되어, 전 부치는 봉사도 함께 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2015 경기안산과학축전 성료 미래과학자들에 ‘상상 그 이상의 미래’ 보여줘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15 경기안산과학축전’이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서 열렸다.

‘2015 경기안산과학축전’은 ‘과학이 전하는 상상 그 이상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 경기도 과학기술기관·단체,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참여해 작품 전시와 체험활동 등 140여 부스를 운영했다.

15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메인무대에서는 개막식 행사가 열렸다. 안산시 관계자는 “과학이 세상과 미래를 바꾼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원대한 꿈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 청년과학자들의 꿈을 지원한다.”며 개막을 선포했다.

메인무대에서는 사흘간 전통 민속공연, 과학마술공연, 이색자전거 만들기 대회, 가족발명 골드버그대회, 안산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크로스오버 공연, 비거 기네스대회, RSA 댄스 퍼포먼스, 해양과학 골든벨이 열렸고, 17일에는 과학축전 경연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식을 가졌다.

체육관에서는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학생 지능형 로봇대회가 8종목에 14개 부문으로 나누어 열렸고, 대운동장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과학기술 체험관(45개 부스), 상상창의의 체험관(59개 부스), 자연환경 체험관(18개 부스), 배움안전 체험관(5개 부스)을 운영했다.

과학기술 체험관에서는 바나나, 사과, 오렌지 등 과일에 회로를 연결해 게임을 즐기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빨대를 이용해 탄소결합 분자구조를 이어가며 축구공 형태의 플러렌 구조를 만드는 ‘나노STEM’, ‘로봇키트 만들기’, 자율로봇시스템을 체험하는 ‘ICT기반 로봇 시스템’ 등 순수·응용과학, 기술 분야의 체험과 전시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특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한국공학한림원·해동과학문화재단과 함께 주니어공학기술 프로그램으로 빛센서를 이용해 스스로 차선을 따라 움직이는 ‘스마트카’, ‘자가발전 손전등’, ‘저항을 이용한 악기’, ‘소리 속 공학’ 체험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었고, 참여자들에게 미래 공학기술자에 대한 꿈과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상상창의의 체험관에서는 안산시 내 25개 학교, 경기도 내 20개 학교가 참여해 무선조정 자동차를 조종해보는

‘RC가 체험’, 폴리우레탄폼으로 ‘머핀모형 만들기’, 과일 주스로 만드는 분자요리 ‘망고 캐비어’, 음식으로 만드는 ‘화산활동’, 렌즈를 이용한 ‘휴대용 프로젝터’ 만들기, 액체 질소를 이용한 ‘1일 공룡체험’ 등 교과과정을 융합해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줬다.

서하정 학생(초지고3)은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화학정원’은 유리병에 색깔별 가루를 넣으면 가루가 커지면서 산호처럼 예쁘게 자라는 게 신기했어요. 지구과학 교사가 꿈이라 그런지 관람현미경으로 광물을 관찰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어요.”라며 “과학축전에 오길 잘했다.”고 했다.

자연환경 체험관은 페트병 투경으로 ‘이어폰 만들기’, 피자박스로 ‘노트북 거치대 만들기’, 미래 식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곤충(밀웬)을 이용한 ‘곤충 초콜릿’, 먹을 수 있는 물병 ‘오호(Ooho)’, 신재생 에너지를 소개하는 ‘에코프런티어’, ‘태양광모형자동차’ 등 환경관련기관·협회가 참여해 자연환경·생태 관련 체험과 전시를 통해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씨앗을 품은 종이’ 부스에서는 폐지를 먹서에 갈아 곤죽을 만든 뒤 체에 걸러 물기를 제거한 뒤 브로콜리 씨앗을 넣고 천을 덮어 다리미로 누르며 새싹종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소현 학생(안산고2)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폐지로 종이를 만들면서 종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씨앗이 들어 있는 종이를 보며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주고자 아이디어를 냈어요. 종이에 물을 뿌려주면 씨앗에서 싹이 자랍니다.”라고 했다.

또, 경기도과학교육원 이동과학버스, 이동STEAM교실, 주부과학교실과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풍선아트, 아나바다 나눔장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으며, 인포테인먼트(정보와 오락의 합성어) 공간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기술콘서트, ASV 연구 현장투어, 과학명사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세계적인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의 강의를 들은 이정민 학생(슬기초5)은 “교수님 말씀 중에 ‘언제나 이길 수 없지만 언제나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보고 우리나라 로봇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했다.

홍 교수는 고려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과학재단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 등 로봇공학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

‘2015 경기안산과학축전’은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이들이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며 돌아갈 수 있는 알찬 과학축제 한마당이 되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문화광장 ‘키네틱 아트 조형물’ 설치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안산문화광장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화려함, 젊음, 역동성을 상징하는 공공미술 조형물을 설치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기존의 고전적이고 정적인 조각 조형물이 아닌 낙수브릿지 분수와 연동되어 바위가 돌아가는 자전거, 주변의 바람에 따라 도는 바람개비 등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예술작품(키네틱 아트)으로 기획·설치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자전거 휠, 냉각팬 등에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하여 예술적 가치가 있는 바람개비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높은 녹지율을 갖고 있는 안산시의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더욱 부각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 조형물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찾는 관람객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큰 즐거움을 주고, 앞으로 안산문화광장이 안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단원구 건설행정과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베트남 남부를 대표하는 맛집 그린밤부



‘그린밤부’ 팜탄안 대표

‘세계인의 날’을 맞아 안산역 앞 다문화특구 내 다문화음식거리의 베트남식당 ‘그린밤부’를 찾았다.

베트남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그중에서도 쌀을 경작하기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연간 최대 3모작도 가능하다. 이처럼 풍부한 쌀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 쌀국수다.

‘퍼(Pho)’라고 불리는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간편한 아침식사 또는 출출할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다. 쌀국수는 크게 소고기와 사골로 육수를 내고 소고기 편육을 얹어 먹는 쌀국수인 ‘퍼보(Pho bo)’와 닭고기, 뼈를 고아 만든 육수에 닭고기를 찢어 올린 닭고기 쌀국수인 ‘퍼가(Pho ga)’로 나뉜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퍼보’를 즐겨 먹는 반면, 북부 사람들은 담백한 ‘퍼가’를 선호한다.

안산역 2번 출구를 나오면 베트남 남부를 대표하는 ‘그린밤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베트남식당’이 어깨를 나란히 손님을 맞는다.

베트남 이주여성 박하늘 씨(28세, 부곡동)의 소개로 ‘그린밤부’에 들어섰다. 식당 입구에는 현지에서 공수해

온 듯 베트남어가 쓰인 상자가 커커이 쌓여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팜탄안 대표(46세, 베트남)가 일주일에 한번씩 베트남을 오가며 공수해온 식재료라고 한다.

팜탄안 대표는 12년 전에 한국에 왔다. 처음 4년 동안은 한국식당에서 일을 배웠고, 안산에 식당을 개업한 지는 8년이 되었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스무 살 때부터 음식을 배웠고, 12년 동안 요리를 해왔으니 그의 요리경력은 24년이다.

베트남어, 한국어로 표기된 두 개의 메뉴판은 무척 두꺼웠다. 수많은 메뉴 중에서 박하늘 씨가 고향이 그리울 때면 찾는다. ‘소고기 쌀국수’와 ‘새우 계 튀김만두 월남쌈’, ‘해물볶음밥’을 주문했다.

대나무지게 썰기 가인(quang ganh)에는 논라(non la)가 매달려 있는 소품에 튀김만두와 월남쌈 재료가 담겨 나왔다. 논라는 강렬한 더위와 햇볕을 가리는 베트남 전통 모자다. 새우, 야채, 계맛살을 라이스페이퍼에 싰 뒤 튀김만두를 멀치액젓, 마늘, 베트남고추, 설탕, 레몬이 들어간 소스에 찍어 먹으니 고소하고 달짝지근했다.

해물볶음밥은 건홍합, 새우, 조갯살이 든 볶음밥으로 찰기가 없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식감이다. 하늘 씨처럼 볶음밥에 베트남 간장을 조금씩 뿌려서 먹으니 감칠맛이 난다.

팜탄안 대표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손님들에게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야채와 국수

등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공수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고국의 음식과 함께 정을 나누는 베트남식당은 우리나라의 어느 맛집과 다르지 않다. 사람 냄새가 나는 맛집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멀지 않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다.

- 문의 : 그린밤부 ☎ 031-492-6668
- 주소 : 단원구 원곡동 787-12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시 - 반월농협 - 농업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고장 먹거리

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5월 20일 개장!

신선하게 팔립니다. 신선하게 팔립니다.

www.banwol.nonghyup.com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팔립니다.

채소류
Vegetables

과일류
Fruits

곡류
Cereals

육류
Meat

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 포장, 가격결정, 진열, 재고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365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본오동) ☎ 031-437-5237
(본오동 각골사거리 고가차도 옆 / 해안로 매송IC 진입도로 초입)

지역경제 활성화 ‘빅데이터’에서 답을 찾다 안산시-KT-BC카드, 빅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안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민간기업과 손잡고 정책을 수립해 나아간다. 이를 위해 5월 6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관계자, 장희엽 KT 수도권서부고객본부장, 전경혜 BC카드 영업부문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산시는 공공 및 민간영역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 설정 및 미래전략 수립 ▲ KT는 공공 및 민간데이터 수집·분석 ▲ BC카드사는 소비 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했다.

빅데이터 시범과제는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분석’으로, 이를 위해 KT는 주요 지역의 휴대폰 통화사용량 분석, BC카드사는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세월호 사고 전후 업종·지역별 소비침체 정도, 유동인구 변화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산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인 경제운영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3자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협업 관계 지속 등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안산시 미래전략관



평면의 진동 TREMBLEMENT DE SURFACE, 2009



구조공간 ESPACE DE STRUCTURE, 1992



‘신성희 고향에 오다’展 누아주(nouage, 엮음), 독자적인 회화양식 탄생

공간별곡 작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숨을 멈춰 본다. 방향을 틀어 이쪽으로 들여다보고 저쪽으로 들여다보고 정면에서도 바라보았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보는 사람, 보는 각도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故 신성희 작가(1948~2009) 작품이 특별한 주제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오브제작품에서도 작품 속 거울에 무엇이 비춰질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작품을 완성하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나인 것이다.

故 신성희 작가는 (현)안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안산출신 작가다. 누아주(nouage, 엮음)라는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탄생시키며 프랑스와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미술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1970년대 중후반 ‘마대 위에 마대’라는 극사실주의 표현방식을 통해 평면회화의 본질에 대해 모색하였다. 1980년대에는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판지를 손으로 찍어 붙임으로서 정형화된 회화형식을 탈피하여 재구성한 콜라주 작업으로 그의 조형적 실험을 확장했다. 이후 그의 회화는 좀 더 과감한 변형과 해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채색한 캔버스를 얹

게 잘라 다시 캔버스에 박아서 이어 붙이는 ‘연속성의 마무리(solution de continuité)’ 연작을 남겼으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의 예술적 창조 작업의 결실인 누아주를 탄생시키게 된다.

신성희 작가는 ‘나의 작업들은 찢어지기 위하여 그려진다. 그리고 찢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예술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이 접히고 묶여지는 것은 곧 나의 답변이다. 공간은 나로 하여금 평면을 포기하게 한다. 포기해야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게 한다. 씨줄과 날줄처럼 그림의 조각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곳마다 매듭의 세포들을 생산해낸다. 묶여진다는 것은 결합이다’라고 작가 노트에서 말한다.

신성희 작가는 안산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향교에서의 추억과 수암산 자락에서 뛰어놀던 시절을 무척 그리워했다. 프랑스에서 30년을 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했다고 신성희 작가의 부인 정이숙 여사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이숙 여사는 “단원전시관 제2관 전시는 특별히 안산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다른 전시장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초기 작품과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오픈 당일 안산초 6학년 학생들의 꽃다발을 받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 신성희 작가가 절절히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그 이유를 이번 전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신성희 작가와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의 기쁨을 전했다.

월피동에서 24살 딸을 데리고 온 이차성 씨(48세, 월피동)는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했다. 부부가 먼저 와서 감상하고 딸을 데리고 다시 미술관을 찾았다고 한다. 서로 그림을 보며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말없이 그림을 감상하기도 한다. 이차성 씨는 “이런 전시가 안산에서 열린다는 게 정말 좋아요. 찢김이 좀 강하게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트랜드라서 인상적이네요. 딸을 데리고 다시 와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5월 말일까지 ‘신성희 고향에 오다’ 특별전이 열린다. 고향에서 열리는 특별전인 만큼 안산시민으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자.

- 전시 : 5월 30일까지
- 문의 : 단원미술관 ☎ 031-481-0504
- 이선희 명예기자 <iamy070@hanmail.net>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전국여성백일장... ‘봄꽃·에코·사진’ 詩題, 문학으로 삶의 향기 전해

봄꽃(라일락) / 지관순

이마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에요
바람에 하도 꼬덕이느라 나는 목을 빼곤
사거리 코너 오렌지약국에 매상이 오르고요
횡단보도 앞 현수막은 펄럭거리다 접혀
○월 ○일 23시경
오토바이와 소나타 차량 사고 목격하신 분
연락 주시면 사하겠습니다
아싸, 드디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날이 왔고요
이런 날엔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서
전선줄은 팔이 꼬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신호등은 빨간 불에 녹색 앞 돌어나면 어쩌나
신경을 곤두세우지요
건너편 메타세콰이어가 휘파람을 불어요
라일락이여, 이리 건너오지 않을래요?
엄마는 함부로 길을 건너지 말라 했지만
누구나 엄마를 배신하며 사랑을 아يا가니까요
나비 한 마리 금 구두를 신고 내 등을 올라오고 있어요
내 콧구멍은 거북하게 열려 있으므로
그냥 지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 신발을 훔쳐야겠어요
아,
내 몸에 전등이란 전등은 다 켜고 가네요

지난 5월 1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제14회 안산전국여성백일장’ 장원 작품이다.

‘봄꽃·에코·사진’을 시제로 열린 이날 백일장에는 서울, 인천, 천안, 대전, 대구, 김천 등 전국 각지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부터 평상시 글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참가해 문학으로 피어나는 삶의 향기를 전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운기 한양대 교수는 “슬픔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위트 있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다. 슬픈 내용이 눈물 나게 했지만 여유 있게 처리하면서 승화시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며 “수상작품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과 글쓴이와의 거리를 가늠해 보시라.”고 심사평을 했다.

이번 백일장은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봄꽃 라일락을 쓴 지관순 씨가 장원에 뽑혀 안산시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준장원에는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노란 개나리를 연결해 수필을 써낸 우마루네 씨가 한양대학교 부총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차상에는 수필부문 박소정 씨와 시 부문 심은정 씨가 선정돼 상장과

상금 20만 원을 받았고, 전선현 씨와 조은희 씨는 각각 수필과 시 부문으로 차하에 선정돼 상장과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 참방에는 수필 부문 김지연, 김수선, 송주연, 고명완, 신원경 씨와 시 부문 김민숙, 여명례, 이은지, 강서경, 박정옥 씨가 선정돼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1990년 5월 안산시 주부의 날 기념 백일장에서 수상한 14인이 주축이 돼서 발족한 안산여성문학회는 매년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열어왔다. “사회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여성들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학회 신옥철 회장은 “미래세대 주인인 자녀들 교육의 중심역할은 어머니 몫이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의미를 담아 정성과 노력을 다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한 작품 한 편씩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것이니,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백일장 수상작들은 다음 카페 안산여성문학회에서 볼 수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세계 다양한 외국인이 참여한 의미 있는 전통성년례 열려

지난 5월 16일, 안산행복예절관 행복동에서 '제43회 성년의 날 맞이 전통성년례'가 열렸다.

전통성년례는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로 관혼상제 중 첫 번째 의례이다. 성년례 과정 중에 의복을 바뀔 입고, 관을 쓰고 비녀를 꽂는 등의 의식을 통해 어른과 동일한 복식으로 바꿈으로써 그 정신세계도 어른과 같이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번 전통 성년례에는 총 67명이 참가했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한 성년례에 14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12명과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2명이 참가했다.

한양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환학생 쉼미웬 씨(중국, 23세)는 “한복은 처음 입어보는데 무척 이쁘네요. 친구들과 같이 와서 즐거워요.”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국말을 잘하는데 언제 한국에 왔냐는 질문에 쉼미웬 씨는 “한국에 온지 1개월밖에 안되었어요. 룸메이트가 한국 학생이어서 한국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라며 친구들에게 한국말 통역을 도맡아 하며 즐거워 한다.

네델란드에서 온 아스트리드 씨(22세) 역시 한양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환학생이다. 한복을 입고 즉



두리를 만지며 즐거운 모습이다. 26세 미만까지 이번 성년례에 참가할 수 있어 쉼미웬 씨와 아스트리드 씨도 우리나라 전통 성년례에 참가할 수 있었다.

김혜지 씨(한양대1, 20세)는 “스무살 만이 할 수 있는 의식이라 의미가 있어 좋아요.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한복은 어렸을 적에 입어보고 오랜만에 입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남자 친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더 의미가 깊어요.”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성년된 것을 축하드린다. 또한 여

러분을 잘 키워준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안산은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로 발전하고자 한다. 사람중심이란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자’라는 뜻도 있다. 성년이 되었으니 사회에 책임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 우애 있게 지내자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맑고 고운 날 성년이 된 걸 축하한다. 오늘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 갖고 멋진 성년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성년례 관계자는 “의식을 통해 어렵고 힘든 절차를 한 번 밟게 되었다.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만남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오늘 이런 의식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20년 동안의 마음을 깨끗이 닦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거라고 생각한다. 20년 동안은 부모와 사회의 은혜를 따랐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 성인으로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성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년례에 안산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과 식 후 다과를 즐기며 성년 뒤을 축하했다. 세계 다양한 외국인이 참여한 성년례인 만큼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날이 되었다.

· 문의 : 안산행복예절관 ☎ 031-475-0323~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자비 광명의 불 밝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축제 열려



지난 5월 9일(토) 안산문화광장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축제가 열렸다. 석가탄신일인 사월 초파일(5월 25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축제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연등을 만들고 동양의 전통차와 연꽃차 등을 시음하며 축제를 즐겼다.

연등(燃燈)은 ‘등불을 밝히다’는 뜻으로 불교에서 등(燈)은 어리석음과 어둠을 밝히는 의미로 지혜에 비유된다. 크리스마스 때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트리를 만들어 집안을 장식하는 것처럼 연등축제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시민이 참여해 ‘등불을 달아 불을 밝힘으로써 무명을 깨치라’ 가르친 부처의 말씀을 음미했다.

와리풍물놀이보존회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1부 법요식에 이어 다양한 공연들이 2부에서 펼쳐졌다. 실버밴드 ‘전하태평’은 ‘쫄레쫄레’와 ‘공감’, ‘안동역 앞에서’를 멋들어지게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고, 화림선원 합창단은 부처님 오신 날을 노래한 찬불가 ‘임 오신 날’과 ‘아름다운 나라,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불러 은은한 찬불가의

멜로디를 전했다. 이어진 안산경기민요단의 ‘방아타령’과 한강수타령, 뱃노래’ 등은 축제에 흥을 더했고, 안산출신 국악인 이윤선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걸맞게 가수 이선희의 ‘인연’을 들려줬다. 초대가수 안진미의 ‘부초같은 인생’과 안산시 불교연합합창단의 ‘탄생, 눈부신 정토, 자유·평화·행복을’에 이어 안산전통연희원의 사물놀이를 끝으로 2부 행사가 막을 내렸다.

저녁 8시부터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 모두 연등을 나누어 받고 연등축제의 꽃인 제등행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등불을 밝혀두고 열을 맞춰 걸었다. 문화광장에서 시작한 행렬은 광장을 한 바퀴 돌아 시청 앞에 마련된 봉축탑까지 갔다가 되돌아 왔다. 등불을 밝혀 어리석음과 어둠을 떨치고자 한 시민들의 얼굴에는 자비, 광명의 환한 불빛이 어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남북의 화해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민주와 통일을 말하다’

지난 5월 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함세웅 신부의 ‘남북의 화해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민주와 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함세웅 신부는 대한민국의 교육자, 사회운동가, 로마 가톨릭교회 신부이다.

강연을 주관한 안산통일 포럼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남북의 화해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씩만이라도 내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산통일포럼 관계자를 비롯해 청소년, 안산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은 진행되었고 함세웅 신부는 “한국 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통일 조국을 만들어야 하며, 세월호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제주 강정마을과 송전탑, 청년들의 고통, 노인빈곤과 청소년 교육 등 우리 시대 산적한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의 화해와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개인과 단체 모두 개인적·조직적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어 단합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 넘게 이뤄진 강연 속에서 함세웅 신부는 진실과 열정을 토로하고 청중은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 강연이 끝나고도 청중들과 함세웅 신부는 남은 이야기에 자리를 뜰 줄 몰랐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사진에 담으며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꿈꿨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마을 숲'
사람을 품다 6

안산이 숨겨놓은 보물 같은 산 '광덕산' 이야기

산에 오르는 재미와 아기자기한 하산길의 여유

광덕산(廣德山)은 단원구 와동과 상록구 월피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해발 209m로 안산시 공설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정상에는 팔각정이 세워져 있다. 월피동 방향 산기슭에는 서울예술대학교가 있다.

광덕산은 안산의 주산인 수리산(修理山)에서 남쪽으로 뻗어 화정동 마하산(麻霞山)으로 이어지고 다시 마하산에서 뻗어 와동에서 솟은 산이다. 광덕산은 조선 때까지만 해도 산 모양이 서울을 배반하고 있는 듯하다 하여 쓸모없는 산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안산 신도시 건설로 전후좌우의 산줄기들이 길을 내느라 잘려져 있어 그러한 형국은 보이지 않는다.

광덕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와동 꽃빛공원(공원묘지), 사세충열문 공원, 행복예절관, 월피동 서울예대, 광덕시장 코스가 있으며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다.

그중 서울예대 코스를 소개한다.

주말 오후 서울예대 정문 옆 넓은 주차장이 등산객에게 넉넉히 자리를 내어준다. 산기슭에 코를 박듯 나무그늘에 주차를 하고 나니 약수터가 보인다. 동네 주민들이 물통 가득 물을 채우고 있다. 약수터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등산로 입구가 보인다.

오솔길처럼 가느다란 초입을 지나면 경사가 급해지며 편마암이 툭툭 튀어나온다. 돌과 흙을 고르며 걸음을 옮기느라 숨이 턱에 닿을 즈음이면 어느새 산 중턱이다. 지면이 평탄해져 주변을 둘러보자 양 옆으로 곧게 뻗은 나무들이 시선을 빼앗는다. 연녹색 나무들은 산을 오를수록 짙고 뻘뻘해져서 주변의 소음을 차단시키고 고즈넉한 숲이 되어 등산객을 맞는다.

나무의자가 놓인 곳에는 햇볕도 잠시 주춤한다. 등성이에는 지층을 드러낸 암석이 등산객의 발걸음을 늦추고 그 사이로 수줍게 암석을 기어오르는 어린 담쟁이들이 보인다. 초입에서부터 약 1km 지점에서 운동시설과 이정표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방에서 올라온 등산객이 방향을 가늠하며 길을 찾는다.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그 세가 험하다. 산세라고 하기엔 낮은 산이지만 비탈과 암석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길에는 난간처럼 밧줄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다. 산을 잘 오르지 못하는 아이들이 병목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잠시 서서 땀을 닦았다.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팔각정이 나타나고 그 사이로 투명한 하늘이 보인다. 계단을 오르면 천국이 펼쳐질 것만 같다. 팔각정에 오르고 나서야 정상이 눈앞에 있음을 안다.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벤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나무 군락이 적당히 그늘을 만들어주는 산 정상에서 주변을 바라본다. 와동, 선부동을 지나 망원렌즈처럼 시야를 넓히자 저 멀리 대부도로 가느다랗게 연결된 시화방조제가 보인다. 가시거리 15km에서 그 너머의 송도 신도시도 보인다. 반대쪽 성포동 쪽으로는 노적봉과 수리산 줄기 밑으로 산업도로와 부곡동 지역이 펼쳐져 있다.

빨강과 노란 등산복을 입은 노부부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 옆 벤치에서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던 원현주 씨(40세, 초지동)는 “옆집 동생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고, 함께 온 이웃은 서울예대에서 정상으로, 그 다음은 광덕시장 쪽으로 코스를 잡으면 짧지만 산에 오르는 재미와 아기자기한 하산길의 여유까지 동시에 맛볼 수 있다고 귀띔해준다.

동네 야트막한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보물을 숨겨놓고 웃는 개구쟁이처럼 비실비실 웃음이 빠져나온다.

“광덕산은 안산이 숨겨놓은 보물 같은 산”이라고 동네 방네 떠돌고 다니고 싶은 그런 날이다.

산선명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광덕산 정상에서 바라 본 안산시 전경.

숲에서 노는 아이들,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제일유치원은 10년간 유아들과 함께 광덕산에서 숲체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영신 원장은 제일유치원 유아에게 인성,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숲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신 원장에게 숲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아이들은 숲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우선 우리들은 숲에 초대받은 손님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항상 손님으로 숲에 있는 자연물들을 소중히 생각하도록 이야기하고 숲 활동을 시작합니다. 숲에서는 자유놀이와 주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주제 활동의 경우 숲의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나무와 식물들의 이름과 특징, 한 살이를 살펴보고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와 놀이도 하지요. 유치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숲이라는 장소로 옮겨져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활동이 숲 활동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그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A) 숲에서 하는 계절별 주제 활동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역시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숲에 있는 자연물은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낚시대가 되었다가 물고기가 되었다가 지휘봉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친구들과 힘을 합쳐 나무를 모아 숲 교실도 만들고, 나뭇잎 그릇에 열매들을 모아 소꿉놀이도 하고, 나무 사이에 줄을 걸어 그네도 탑니다.

숲은 그 자체가 놀이터이고 장난감을 만들어 내는 공장 같아요.

Q)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활동은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조화로운 인성발달을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숲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감각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을 경험하고, 수없이 변화하는 자연을 관찰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 힘은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관심, 흥미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뭇가지, 꽃, 흙, 돌멩이 같은 자연물은 단순한 모양이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덧입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도 하고요. 그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듣는 아이들

뿐 아니라 놀이과정에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친구들과 양보하거나 타협하고, 경쟁도 하면서 친구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고,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성도 향상됩니다.

아이들이 숲에 갔을 때 숲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숲을 자주 찾아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곁에 아이들이 찾아가기 쉽고 활동하기에 좋은 광덕산이 있다는 것은 제일유치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숲체험 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A) 산에 오르기 힘들어 하던 아이들이 끈기 있게 도전한 결과 이전 숲체험 언제 가냐고 재촉합니다. 자연물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기뻐할 때, 숲에서 얻은 자연물을 이용해 교실에서 즐겁게 놀 때 아이들은 감수성과 창의력이 쑥쑥 자랍니다.

숲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뻐합니다.

Q) 요즘 광덕산에서는 어떤 식물을 볼 수 있나요?

A) 봄이 된 광덕산에서는 철쭉, 진달래, 개나리 등의

봄꽃뿐만 아니라 민들레와 제비꽃, 꽃다지와 같이 바닥에 낮게 피어 다리를 구부려야만 볼 수 있는 야생화도 볼 수 있어요. 딱총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지렁나무도 있는데요, 원래 바닷가나 높은 고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예전에는 이곳이 바다와 인접해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서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Q)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며 자연적 교육이 행복과 자발성, 탐구력을 증진시키는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죠.

교사와 학부모가 자신들의 틀에 맞춰 아이들을 억제하거나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으로는 인위적인 성장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심신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인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

부곡초등학교, 사이언스 페스티벌 열려



문 진행요원과 명예교사와 교사들의 안내와 설명으로 전교생들이 여러 체험코너를 체험할 수 있었다. 체험 활동을 위해 명예교사들은 4월 14일 화요일에 부곡초등학교 4층 다목적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체험 부스를 골라서 과학교육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통해 신기한 과학실험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정수기의 원리나, 종이냄비 체험 등을 하면서 아주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또한 학

부모 자원봉사자들도 체험부스를 맡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과학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며 기뻐했다. 또 자녀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에서 1일 명예교사를 하면서 내 자녀 뿐 아니라 부곡초등학생들을 만남으로서 학교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통해 평소 체험하기 어려웠던 교과서 밖의 다양한 과학체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갖고 공동체의식과 질서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의 : 부곡초등학교 (☎ 031-487-729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36개의 과학 체험 부스 운영

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전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약 1,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우는 과학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원리를 체험을 통해 온 몸으로 느껴보는 하루였다.

운동장에 설치된 36개의 과학체험 부스에서는 과학 전

부모 자원봉사자들도 체험부스를 맡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과학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며 기뻐했다. 또 자녀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에서 1일 명예교사를 하면서 내 자녀 뿐 아니라 부곡초등학생들을 만남으로서 학교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체험부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형수의 원리를 체험해 봄으로써 보트에서 평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었다. 거품 속에서 타는 불체험이나 가득차지 않는 잔, 비밀 글씨 체험 등은 평소엔 하기 힘든 과학체험으로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흥미롭게 관찰하였다.

3D공룡 퍼즐이나 단열팽창 실험, 나만의 큐브 만들기,

한국역사에 숨어있는 안산의 흔적을 찾다

만지고 상상하는 안산의 역사 이야기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 학습 과정의 열기가 뜨겁다. 안산 지역사 연구모임 교사진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 속에 숨어있는 안산 역사의 흔적과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의 흐름 속에 처음 기획된 이 수업이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학교 아이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강의는 이론수업과 현장답사로 꾸며진다. 안산 신길동 역사유적지에서 발견된 집터와 오이도에서 발견된 패총을 통해 신석시시대 안산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 고인들의 흔적이 발견됐던 선부동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한다. 안산이 고려시대 문종이 태어난 지역이었다는 것,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이 없고 자그마한 동산들이 많아서 붙여지게 되었다는 안산이라는 지명이 고려초기부터 사용해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조선전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화정동 마을에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는 소머리국밥을 나누는 전통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었다.

첫 시간 수업을 맡았던 신대광 원일중 수석교사는 직접 만든 빗살무늬 토기와 뎀석기 등을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만지게 하면서, 역사를 체험 학습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예시를 보여주기도 했다. 성(城)과 무덤에 조예가 깊은 김진호 원곡고 역사교사는 짧은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 발굴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고대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록의 토대위에 논리적 상상력으로 빈 공간에 이야기를 채워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지역사 수업에 참여한 김용자 씨는 “단순히 학교에서 국사시험 보기위해 외우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 흐름 속에 숨어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직접 유적들을 보고 관찰하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게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 중반을 넘어선 지역사학습 과정의 남은 수업은 조선시대 1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청문당과 경성당을 통해 안산 양반들의 삶을 살펴보고, 일제 침략기때 안산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들을 찾아본 후, 반월공단이 들어서고 다문화 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안산을 재조명하게 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단원보건소, 초등생 대상 치아사랑교실 운영



“치솔에 치약을 콩알만큼 묻히고, 윗니 바깥쪽과 안쪽을 쓸어내리듯이 닦으세요. 아랫니의 바깥쪽과 안쪽은 쓸어 올리듯이 닦고, 씹는 면과 혀, 순서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10번씩 닦으세요. 너무 힘을 줘 세계 문지르면 잇몸이 상하고 뿌리가 패일 수 있어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이현숙 씨의 설명에 관산초등학교 3학년 6반 25명의 어린이들은 저마다 치솔과 치아 모양의 손거울을 들고 ‘어금니 열 번, 앞니 열 번씩, 세균의 유무정도를 나타내주는 빨간색 치면 착색제를 바른 이를 열심히 닦았다.

안혜경 어린이는 “오늘 양치 수업 참 재미있었어요. 착색제를 이에 문혔는데 세균이 많다고 빨갱게 변해서 깜짝 놀랐어요.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꼭 해야 돼요.”라고 말했다.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역사회 16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사랑교실’을 운영한다. 치아사랑교실은 학령기 아동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올바른

치솔질 습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활동한다.

치아사랑교실은 학생 치아에 치면 착색제를 바르고 치아모형의 거울을 통해 입속 세균을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이를 잘 닦을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양치교실의 이현숙 담당자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 어릴 때 올바른 양치습관만 잡아줘도 튼튼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닦고,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고, 치아 홈을 메워주고, 특히 잠자기 전에 이를 닦아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알려줬다.

안산시 관산·원일초등학교에는 보건복지부와 안산시 지원으로 설치된 양치시설이 있어 전교생이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한다. 단원보건소는 전교생에게 양치 컵 세트를 제공, 체험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양치시설을 방문해 점심식사 후 치솔질 지도와 시설점검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치아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아 관리는 중요하다. 특히,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생시기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행동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충치(치아우식증)와 잇몸병(치주질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단원보건소의 찾아가는 ‘치아사랑교실’이 눈길을 끈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은 “아동기는 치아건강의 중요한 시기”라며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의: 단원보건소 (☎ 031-481-3490)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우드볼 동호회 'WFC'

호수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친선게임 나눠

안산 WFC(Woodball Family Club) 회원들이 호수공원 내 12,000평의 우드볼 전용구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안산 WFC는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우드볼 동호회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1시부터 친선 게임을 한다.

우드볼(Woodball)은 골프와 게이트볼을 접목한 운동으로 90년대 대만에서 시작된 신종 스포츠로 동남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우드볼이 들어온 시기는 2000년도, 안산에 우드볼 동호회가 생긴 지는 7~8년 되었다.

안산 호수공원에 내 우드볼 전용구장은 전국적으로 최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나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친환경 구장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울려 하는 운동으로 정신적인 건강에 최고라고 회원들이 귀뜸한다.

안산 우드볼은 국제 룰과 같은 12홀을 돌며 경기를 한다. 4명이 조를 이뤄 단식으로 12홀을 돌면 1시간, 복식으로 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말렛이라는 전용 장비를 가지고 공을 치는 운동으로 운동 방법은 골프와 비슷하다. 우드볼 공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지름이 9cm이다. 골프는 공을 공중으로 띄우지만 우드볼은 절대 공중으로 뜰 수가 없으며 바닥으로 굴러 나가게 하는 운동이다.

안산 우드볼 클럽은 1년에 2번 국제대회에 참가하는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 원정 경기를 벌이기도 한다. 학생부, 일반부, 장년부로 나누어 경기를 하며, 최근 학생들에게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안산 WFC 동호회 회원은 30명 정도다. 매주 토요일 1시 주례 경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모여 운동을 한다. 토요일 이외 삼삼오오 모여 아침 일찍 운동을 하기도 한다. 안산 우드볼연합회 노준섭 사무국장은 "우드볼은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폭우 시에는 운동을 안하지만 비가 오면 오는대로 비를 맞으며 하는

느낌도 좋습니다. 봄이면 꽃구경 하며,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하지요. 겨울에 눈 위로 공이 굴러가는 것을 보는 묘미도 크지요. 자연에서 하는 정신건강에 좋은 운동이라 여성 회원들이 많은 편입니다."라며 우드볼의 매력을 자랑했다.

WFC 김선길 회장은 "우리 동호회는 글자 그대로 가족입니다. 매주 한 번씩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 모임 외 친목의 자리를 가지고 우드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회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고 참 멋진 삶을 사는 회원들을 보면 좋아요. 앞으로 안산 우드볼 연합회를 활성화시켜 국내 경기대회 뿐 아니라 세계에서 우뚝 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은 그런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고 회원들도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칭찬합니다

대한어머니회 정영숙 씨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 활짝 열려



언제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간다는 정영숙 씨. 그의 상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정영숙 씨는 2013년부터 대한어머니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는 여성들의 능력향상과 역량강

화를 위한 봉사단체다. 어머니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동시 공익사업을 펴므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대한어머니회 단체 중 최연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영숙 씨가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알게된 것은 개인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뻥족해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 뻥족한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문화를 접목시키게 됐다.

정영숙 씨는 2013년 12월 첫 '사랑 피움' 콘서트를 열었다. '사랑 피움' 콘서트는 장소, 공연자 등 모두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다. 각 장르별로 시낭송, 정통 클래식부터 세미클래식까지 그리고 가요 등 한자리에서 수준 높은 여러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공연 관람자들은 즐겁게 즐기면서 또 다른 기부를 하게 된다. 자율적으로 내는 소정의 금액은 음료값을 제외하고 전액 소아암 환자 가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부된다.

정영숙 씨는 "대한어머니회 상담실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상담을 받고 자신의 변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소리에도 모양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쓰는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으니 동글동글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 혼자 세상을 밝힐 수는 없다.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 옆으로 옆으로 불을 붙이고 그래서 함께 세상을 밝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네팔 라마 씨의 안산살이 "나마스떼, 네팔"



네팔 카트만두가 고향인 라마 씨(36세, 원곡동)는 2001년 스물한 살 때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4년여의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네팔에서도 2년 간 한국어를 배우면서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아 2007년에 경희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하면서 다

시 한국 땅을 밟았다. 오산과 인천의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을 배우면서 다문화인들의 수도가 '안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산에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2009년부터 안산에 정착하며 경기과학기술대학 e-비즈니스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원곡동에서 원단, 담요, 솜 등을 네팔에 수출하는 소규모 무역업을 하고 있다.

네팔 무역상들은 "한국제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질이 좋다"며 라마 씨의 가게를 이용하고 있고,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작년에 라스미 씨(27세)와 결혼을 한 라마 씨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해서 좋은 점이 많으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라마 씨는 '늘 배워야 한다'는 학구열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스마트허브, 공단에서 예술하기 프로젝트' 우드버닝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지난

4월에는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현재 네팔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는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외국인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산재사고나 월급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통역을 해주고, 한국 투어 등 문화체험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접하는 등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네팔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네팔어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 언어가 비슷하고 자주 접해온 언어라서 이들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팔인은 물론 이들 모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싶어요."라고 했다.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그리던 라마 씨에게 네팔대지진 참사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조심스레 다시 그와 연락이 닿았다. 다행히 라마 씨 부부의 가족들은 무사했다. 그러나 집은 거의 무너지고 살아남은 이웃들은 한국 등 각국 구호단체에서 보내온 텐트에서 담요와 물, 구호식량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6월이면 우기가 시작되는 네팔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본다. 모든 생을 신과 함께하는 네팔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나마스떼(namaste), 네팔.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단원구·상록구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가져

매년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임을 새삼 기억하고 선물을 사느라 행복한 고민을 한다.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부터 화려한 꽃바구니까지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해 왔으나 '아버지날'이 거론되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되었다. 365일 어느 하루라도 어버이의 은혜를 잊으리라는 지난 5월 8일 상록구 노인복지관과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해 참석한 어르신을 기쁘게 해드렸다.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잔치를 열었다. 1부 개회식 행사에 이어 마련된 2부 행사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밴드, 난타, 치어리더,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좌

석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무대 주변에는 부채에 글씨 써드리기, 네일아트, 풍선아트, 수지침, 물 풍선 터뜨리기, 한 궁, 윗놀이와 의료상담, 바자회, 먹을거리 코너가 마련되었다.

어르신들의 손톱에 정성껏 매니큐어를 바르던 안경임 어르신(70세, 성포동)은 “작년에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등록해 교육을 받은 후 네일아트 봉사를 하고 있다.”며 “도움을 받을 나이에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하다. 몸을 못 움직이시는 어르신들도 손톱에 고운 빛깔의 매니큐어를 칠해드리면 좋아하신다.”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뜻한 봄볕만큼이나 환하게 웃음 짓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행복이 묻어난다.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어버이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라는 주제로 효문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지역사회의 선배시민이자 어버이이신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며느리들은 ‘현금을 드리는 것’을 꼽은 반면, 어르신들은 ‘마음’을 해아려주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식들이 아무 탈 없이 ‘잘살아 주는 것’을 꼽았다. 또한 자식들에게 서운한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경험으로 하는 조언을 무시하고 마음을 몰라줄 때’라고 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김정자 어르신(72세, 선부동)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식 위주로 살지만 조금만 부모를 생각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부모들도 옛날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면 서로가 편안하다.”고 말했다.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늙음도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세대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때부터 시작된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멀리가지 않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노니 좋아요”

일동, 반월동, 사1동 동네축제



반월동 축제모습



사1동 축제모습

최근 안산에 동네마다 다양한 마을축제가 생겨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마을축제가 좋은 이유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은 휴일에 멀리가지 않고 사람에 치이지 않고도 동네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두 번째 이유는 동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마을축제 시작되기 한달전부터 어른들은 행사 기획을 하고, 물품도 준비하고, 아이들은 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재능기부로 마을 축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전기설치를 돕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민은 어린이들에게 겨울왕국의 엘사 머리 만들어주는 부스를 운영

한다. 분식점 사장님은 떡볶이 양념을 전수하고, 식당에서는 먹거리 재료를 기부한다. 지난 어린이날, 각 동네에서 벌어졌던 마을축제 현장은 어땠을까.

일동 어린이날 축제는 마을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과 함께 숲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동네 아빠들의 모임이 중심이 되어, 운동회 기획은 물론 물품 빌리고 장보는 것까지 직접 했다. 당일 운동회 사회도 아빠들 중 한 분이 맡았고, 게임 종목도 방법도 모두 아빠들의 준비로 진행됐다. 피구, 축구, 보물찾기, 단체줄넘기 등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진지혜 씨는 “어린이날 멀리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노니까 너무 좋았다.”며, “얼굴 처음 붉은 분들도 있었는데, 꼭 영화 김

봉두에 나오는 장면처럼 다같이 운동회하고 노니까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반월마을 어린이 축제는 가족이라는 테마로 모든 세대가 다같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의용소방대와 경찰서의 도움으로 안전 체험 부스도 따로 운영했다. 추억의 가족, 신나는 가족, 안전한 가족, 먹방가족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어 주민들이 축제를 즐겼고 그중 먹거리로 10미터 김밥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먹었다. 반월사랑 송승연 간사는 “마을축제에 여러 동아리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축제 진행을 함께 도와서 더 뜻 깊었고, 청소년들과 플래시몹을 함께 연습하고 공연했던 것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사1동 놀이터축제는 ‘엄마아빠 어릴적에’란 주제로 1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 사탕골라먹기, 과자 따먹기, 팥없는 뽑기, 달고나 만들기 등 70·80년대 추억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축제 때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은 생수병을 이용한 물총놀이 코너였다. 이날 봉사자로 참여한 전정숙 씨는 “동네 아줌마들이 겁없이 이렇게 큰 행사를 치러내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으며, 박영민 씨는 “올해로 3회째 축제를 하다 보니 이제 많은 주민들이 그릇을 가지고 나와 일회용품 안 써서 쓰레기도 확실히 줄었고, 시민 의식도 좋아진 걸 느낀다.”고 말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행복나눔’무료급식소, 제42주년 어버이날 잔치

5월은 따뜻하고 훈훈함이 묻어난다. 어린이날은 나이를 떠나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스승의 날은 잊혀져가는 학창시절의 풋풋함과 선생님들과의 향기어린 기억들을 되새기게 해준다. 또한 어버이날이 되면 다시 한번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몽글한 하루를 보내게끔 한다.

비영리단체인 행복 나눔은 부부(이석권 대표, 신정옥 원장)가 경영하는 단체로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 후원자 100여 명, 기업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운영하면서

주5일을 어김없이 주민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통해 음식과 정을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은 힘든 환경에도 여러 곳을 돌며 이어오다 본오동에 정착한지 11년째인 올해도 전곡노인정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큰 잔치를 열었다.

주민봉사자들은 새벽부터 나와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 어린이집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꽃을 달아주었고 며칠 동안을 연습해 익힌 재물을 보여주며 기쁨을 나누었다. 노래자랑에서는 쑥스러운 시간도

잠시 노래실력을 뽐내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정옥 원장은 “남편이 시작한 일이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투정 아닌 투정도 부렸는데 이 일이 천직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면 부장부수 아니겠어요? 하나뿐인 자식도 결혼하면서는 매월 100만 원의 기부를 꾸준히 해주는데 아마도 우리가족은 이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족 같아요. 또한 이웃 분들께서는 일을 하다가도 손길 모자란다면 뛰어와 주시고 돈이 부족해 음식준비가 소홀할라치면 자기 집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 정도니 우리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점심 한 끼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말동무가 되어주길 바라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고 함께하는 의미”라고 말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행사 시작 10시부터 시작되어 2시가 다되어 끝을 보였는데 잠깐의 노고가 큰 행복을 가져다주며 모두들 기뻐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나눔을 같이한 두산 인프라코어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지역주민 봉사자들, 어린이집 식구들, 상록요양원봉사자들 모두는 이런 나눔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나눔은 나눔 자체로 행복해지고 풍족해진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페달을 밟으면 건강이 따라와요’

안산시 자전거교실 운영해



상록수체육관 운동장에서 자전거 교육을 하는 박월순 강사(오른쪽)

지난 5월 12일, 전날 내린 비로 기온은 다소 낮았지만 상록수체육관 운동장에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안산시상록수 자전거동호회 회원들로 활기가 넘쳤다. 헬멧과 팔·무릎보호대를 착용한 시민들은 운동장을 돌며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상록수 운동장에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 박월순 강사(57세, 일동)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자전거를 타면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월순 강사는 6년 전 심장에 무리가 와 쓰러진 후 응급실로 실려가 심폐소생술 후 깨어났다. 그 후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힘에 겨웠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로 자전거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도 힘들었지만 2년여에 걸쳐 조금씩 연습하다보니 현재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며 자전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상록수 운동장에서 자전거 교육을 받은 후 자연스럽게 구성된 동호회 회원들은 현재 30여 명으로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아 시작하게 되었다. 5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된 동호회 회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자전거를 탄다. 가깝게는 호수공원으로 멀게는 대부도까지 그날그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소를 정해 출발한다. 이순덕 회장(69세, 본오동)은 “자전거를 탈 때 시민들에게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것과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를 한다. 자전거를 타면 특히 고관절이 좋아져 침을 맞으러 다니거나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김 모 씨가 자전거 교육장을 찾아 연습을 하며 활력을 찾자 가족들이 찾아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응원하던 모습을 이야기하며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이 망가진 것도 모른 채 살다 뒤늦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장을 찾는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건강을 챙기시라고 조언해드린다.”고 한다. 국민생활체육 안산시자전거연합회가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안산시민 자전거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상록수체육관 운동장과 화랑유원지 운동장, 민속공원 운동장에서 평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전거와 보호 장구를 비치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교육장별로 월1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교육을 진행한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 ☎ 031-481-2495

국민생활체육 안산시자전거연합회 ☎ 031-413-1684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안산시, 고품질 쌀 생산 위한 모내기 시연 가져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2015년 풍년농사 기원 모내기 시연행사를 본오뜰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 관계자들과 지역주요인사, 농업경영인,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직접 이앙기를 운전하여 모내기 시연을 했다.

본오뜰쌀이 생산되는 본오뜰은 예전에는 바닷가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간척지를 농경지로 이용하여 천혜의 바닷바람과 수리산 맑은 물로 농사를 지어 밥맛이 뛰어나고 까끄라기가 없는 청결미를 자랑하고 있다. 일명 추청쌀이라고 하며 5월에 모내기를 해 10월에 수확하고 있다.

또한 본오뜰에서 생산되는 쌀은 안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쌀로 제공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모내기 시연을 마친 뒤 참석한 분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통해 바쁜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안산시 농경지의 70%를 차지한다는 본오뜰의 풍년농사를 기원하였다.

지역주민이 “열심히 농사지는 쌀의 수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면 제일 기쁠 것이다.”라고 하자 안산시 관계자는 “열심히 밭 흘려 고생하시는 것에 보답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격려했다.

본오뜰의 넉넉함과 풍성함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며 황금빛 벌판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마음도 행복가득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2015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열정有”

- 일 시 : 2015. 5. 23(토) 15:00 ~ 21:00
- 장 소 : 안산문화광장
- 내 용 : 동아리공연 및 부스운영, 초청공연 등
- 주 최 / 주 관 : 안산시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 문 의 : 평생교육과 ☎481-2217

2015년도 안산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 기 간: 2015. 5. 29(금) ~ 5. 30(토)
-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 내 용: 4개 부문 16개 종목 경연(음악/무용/사물놀이/문학)
- 주최/주관: 안산시/(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 문 의: 평생교육과 ☎481-2217

제10회 전국상록수 백일장

- 일 시: 2015. 5. 30(토) 10:00 ~ 15:00
- 장 소: 안산시 일동 성호공원 일원
- 참가부문: 운문, 산문(편지쓰기)
- 신청방법 및 행사문의 (현장접수 가능)
 - 전화접수: 031-409-5559, 사무국장(010-2393-6878),
총무국장(010-4568-2869)
 - 우편접수: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0 무궁화빌딩 208호(고잔동 540-8)
 - 이 메 일: ansanmunin2014@hanmail.net
- 참가대상: 전국 누구나 가능
- 시상일시: 6월중 예정

2015년 굿모닝 어린이 119페스티벌

- 일 시 : 2015. 5. 29(금) ~ 5. 31(토), 3일간
- 장 소 : 안산시 호수공원
- 내 용 : 스토리가 있는 안전체험 및 전시공연 / 119동요대회, 다양한 이벤트 행사
- 주 최 : 경기도

관산도서관 5월 부모학교 「공부상처」

- 일 시 : 2015. 5. 26~6. 9 (매주 화, 총3회) 10:00~12:00
- 장 소 : 관산도서관 지하 강당 • 대 상 : 학부모 80명
- 강 사 : 박민근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저자)
- 내 용 : 내 아이의 공부를 위한 스스로 학습코칭 및 상담시간

안전한국훈련은 행복지킴이!

2015. 5. 18.(월) ~ 22.(금)

5. 20.(수) 14:00~14:20
국민참여 지역특성화 민방위대훈련

안전한국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소(소화기) 소(소화전) 심(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꽃을 쏜다

소화전 사용법

1. 문을 연다

2. 노즐을 잡고 불꽃을 쏜다

심폐소생술 순서

1. 머리 뒤로 몸을 눕힌다

2. 가슴 압박을 30회 한다

심폐소생술 순서

1. 머리 뒤로 몸을 눕힌다

2. 가슴 압박을 30회 한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 자리에 일시정지
- 일반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원도 1차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원도 2차선 이상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원도 3차선 이상
일반차량은 1차선, 3차선으로 양보 (긴급차량은 2차선 통행)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아, 나의 은사님 스승의 날에 다시 떠올려 보는 내 평생의 은사님

은사님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셨다. 안타깝게도 치매증세까지 있다는 사모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사님은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올려다 보셨다.

고개를 드는 힘마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은사님의 눈높이에 맞춰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은사님과 눈을 마주했다. 30여년 전의 사제지간에도 이렇게 애뜻했을까? 하지만 은사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마음이 아팠다. '이 망할 인간아, 조금 미리 와서 보았어야지' 하는 자책이 머리를 스쳤다.

사모님이 다시 한 번 나를 소개했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여전히 따스하게 다가왔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와 1주일동안 재웠던 말썽쟁이 학생요. 중학교때…. 여기서 나가면 깡뎀(교도소) 끌려간다면서…”

말썽쟁이... 그 말에 내 가슴은 더욱 찢어질듯 아팠다. 담배 피우고 씹박질에... 그때 집단 패싸움으로 소

년원으로 끌려갈게 뻔한 나를 당신이 책임지겠다고며 빼내어 1주일간 당신 집에 기거하게 하시면서 ‘인간’만 들어 주신 은사님. 그렇게 사람 구실하게 해주신 그때의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저예요. 상민이요. 제발 사람 되라고 무궁화 나무 가지 꺾어다 회초리로 호되게 때리셨던. 그때 저에게 ‘갈매기의 꿈’ 사다 주셨죠. 리처드 버크 소설요. 사람은 없고 갈매기만 나온다고 재미없다고 패대기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신 거 기억 안나세요?”

나는 애절하게 은사님께 매달렸다. 조금이나마 기억을 되살려보고 싶어 은사님의 두 손을 부여잡고 쓰다듬어도 보았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독백처럼 마냥 헛수고에 그칠 안타까운 후회만 되뇌
이자 사모님이 내 어깨를 잡아주셨다. 은사님은 물끄러
미 나를 바라보시며 그저 빙그레 웃으셨다.

아~ 생각한다.

내가 정신 차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 보다는 더 기뻐하시며 웃으시던 모습.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학에 가라시며 격려해 주시던 미소.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자에게 사랑만 남기고 작년 가을에 낙엽처럼 아주 멀리 떠나셨다. 내 인생에 신처럼 영원한 존재였고, 진정한 사랑이 뭇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은사님이 떠나고 난 자리,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이 더욱 애틋하다.

은사님의 영원의 평온을 빌어드리고 싶다.

남상민 (단원구 선부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전한 사회만들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

손씻기만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신종감염병이란?

미국의학연구소에서는 신종감염병을 지난 20년 이내 그 발생이 증가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증가할 위험을 주고 있는 새로운 감염증, 다시 말하면 새로이 감염증 혹은 약제내성 감염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최근 급증하고 있어 문제인 감염증, 사스(SARS)나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으로 인한 감염증, 결핵이나 슈퍼박테리아처럼 약물로 내성을 갖게 돼 치료가 어려워진 감염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박사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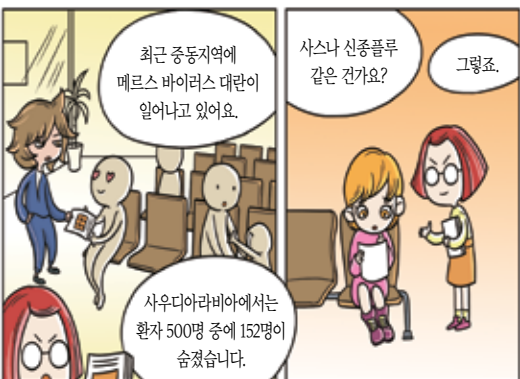
사람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감염병을 인수 공통감염병이라고 해요. 여기엔 공수병(광견병),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인제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 일본뇌염,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변종 크로이츠펔드-야콥병(VJD), 브루셀라증 등이 있습니다. 구제역은 아닙니다.

박박사의 한마디

진드기 때문에 생겼어?

살인진드기도 있고, 다른 진드기들은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니까 풀밭에서도 주의해야지.



비누거품 속에 숨은 과학

비누 분자는 물과 친한 친수성기(머리)와 기름과 친한 친유성기(꼬리)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로 인해 비누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고, 친유성기가 결합하면 기름 때까지 떼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손에 있던 병원균도 말끔하게 떨어져나갑니다.

박박사의 한마디



신종감염병 예방 습관 7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자주 씻기
- 식수는 반드시 끓여 먹거나 생수로 마시기
-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가열해 먹기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해 사용하기
-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를 깨끗이 하고 환기 자주 시키기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 시 외출 삼가기



실학(實學 PRACTICAL SCIENCE) / 전통(傳統 TRADITION) / 교육(教育 EDUCATION) / 휴식(休息 REST)

제
19
회

성호문화제

성호 실학사상으로 세대공감

2015. 5.23.(토)~24.(일)_2일간

성호기념관 / 이익선생 사당(첨성재) / 성호공원

프로그램

콩나물시루 물주기 / 다듬이질체험 / 두부콩갈기 / 미니메주만들기 / 인절미만들기 /
숫대만들기 / 가훈써주기 / 탁본체험 / 단오부채선물하기 / 도자기만들기 / 제기차기 /
굴렁쇠 굴리기 / 팽이치기 / 투호놀이 / 고무신차기 / 코뚜레던지기

삼두회 체험마당

성호 이익선생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기와 버금가는
콩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결성했던 삼두회를
기리는 체험마당입니다.

성호문화제 기간동안(5.23~24)에는 성호기념관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최



안산시 481-2798

주관



안산문화원 415-0041

협찬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